

Notre Dame, Laudate Deum!
노틀담아,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노틀담 수녀회 평화의모후 관구 생태영성 세미나)

“노틀담아,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노틀담 수녀회 평화의 모후 관구는 전 회원을 위한 아홉 차례의 생태영성 세미나를 통하여 하느님을 더욱더 찬미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동의 집 지구가 직면한 어려움을 체감하며, 절망하고 움츠리기보다 희망을 가지고 경계를 넘어 나아가기 위해 쇄신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노틀담 수녀회 평화의 모후 관구는 지난 2014년, 이듬해인 축성생활의 해를 준비하며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생태적 삶에 대한 방향을 찾게 되었고, 이를 전 회원들의 보편의식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생태영성 연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수도회원들 안에 연구 그룹을 만들고, 지구가 맞닥뜨린 시급한 상황을 직면하면서 성경 말씀과 회헌, 교회의 가르침을 토대로 피정을 진행하여 회원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구체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깊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들의 연피정 이후 2015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으로부터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반포되었을 때, 수도회원들은 교황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사도직 안에서 ‘생태적인 삶’에 대한 실제적인 방향을 늘 기억하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의 의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회칙 반포 이후 ‘찬미받으소서’를 중심으로 한 강의와 활동들을 실행해오면서, ‘생태적 삶’에 보다 더 활기를 주고, 쇄신하게 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모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대전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누군가의 생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대전환 The Great Turning’의 길로 가야 한다는 수도회원들의 ‘자각’에서 오는 방향성이었습니다. 어린 수도회원들의 입에서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깊이 깨닫고 이제 구체적으로 돌아설 때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기 전에 우리 가슴을 쳐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라는 제안들이 쏟아졌고, 이제 수녀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데’로 나아가기 위하여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찬미받으소서 7년여정>은 아주 거대한 생명의 물줄기와 같습니다. 이 물줄기를 따라 걸어가는 모양으로 우리모두가 걸어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는 오늘, 수녀회도 7년 여정 일곱 가지 목표들에 귀 기울이고, 실행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왔습니다. 수도회원 각자의 노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공동체 차원에서 이 목표를 다루게 되었을 때 그 의미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임을 의식하며, 세미나를 통하여 ‘회심하면서도 깊게 통찰하는 시간, 체험을 통해 방법을 찾으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향한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멈추고, 직시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방향, 곧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 Let us Dream」에 펼치신 방향성을 선택하였습니다.

세미나의 주제를 아주 용기있게 <노틀담아,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라고 한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Laudato Si」 후속 권고인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Laudate Deum」를 적극적으로 저희 삶에 반영하여 변환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찰을 공동

제가 함께 나누고자 Laudate Deum을 그대로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노틀담아’를 넣어 저희 모든 노틀담 자매들을 하느님 찬미에로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바램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노틀담 생태영성 세미나는 현시대에 누가 가난한지를 알아보게 하는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은 저희 세미나의 근간을 이룹니다. “교회가 위기의 시대에 떠맡아야 할 특별한 역할이 있다면, 그 백성에게 본연의 영혼을 일깨워주며 공동선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상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Let us Dream, p.240).” 따라서 교회의 사명 안에서 현시대를 살아가는 축성생활자로서 저희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시대가 요청하는 시대정의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직시하며, 회심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여 가난한 이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보다 더’ 창조적 충실성으로 우리가 받은 수도 소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너 어디 있느냐?(창세 3,9)”,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창세 4,9)”,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루카 10,33)”,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라는 말씀을 하느님의 부르심과 명령하심으로 듣고 심화하였습니다. 세례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느님과 수녀회와 또한 모든 피조물의 두드림에 귀 기울이며,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 ‘교회 안에서 수도자의 정체성’을 새롭게 짚어보았습니다. 또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받은 존재로서 새롭게 일어나며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점검한 후, 실행할 수 있는 목표에 적용(농사체험, 자원순환, 플로깅, 피켓팅 등)해 봄으로 활기를 찾고, 나아가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성령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렸습니다.

교황님께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교회 쇄신’이라고 하시며, 현시대에 교회가 이 모습대로 가다가는 약한 이들의 신음이 더 커지게 되고, 하느님과의 일치의 길에서 더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는 교회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러한 바램은 축성생활자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부르심으로 들립니다. 세미나 중에 수도회는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정말 미래는 가능한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나침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을 분명하게 자각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향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사회정의와 영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으로 눈을 돌려, 이 모든 것이 연결된 하나의 문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시노드 여정을 통해 시대 정신을 찾으며 나아가는 지금, ‘저마다 제 길에서,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으로서 나아오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시노드 발걸음은 회의로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안에서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교황님은 “노래하며 걸어갑시다!(LS 244항)”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희는 교회의 신앙 감각을 믿으며, 함께 노래합니다. “노틀담아, Laudate Deum!”그러나 이 노래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참여시키는 노래입니다. “000야,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하느님을 찬미하는 우리의 노래가 이 공동의 집 지구를 살리는 하모니가 되어 모든 피조물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창조주의 거룩함을 나누며, 절망의 때에 희망의 소리, 희망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Laudate Deum!